

# 2026.5.1. 노동절 수원에서 만남시다

## 5.1 세계 노동절대회

금속노조 경기지부 사전대회

14:00 (구)경기도청

행진 (구)경기도청 - 도청오거리 - 수원역

세계 노동절 경기대회 15:00 수원역

### 노동절에 만남시다

2026년 5월 1일은 63년 만에 노동절이라는 이름을 되찾고, 전 국민이 쉬는 첫 법정 공휴일로 자리매김 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우리가 노동조합을 통해 매년 노동절을 단체협약 상 휴일로 만들고 근로자의 날이 아닌 노동절이라 부르며 거리로 나가 싸워왔던 역사가 이제 많은 동료 시민이 함께 경험하는 노동권의 날이 됩니다.

역사의 중요한 순간들에 언제나 함께 하고, 스스로 역사를 만들어왔던 시간을 담은 뜻깊은 63년 만의 노동절에 경기지부 1만 1천 조합원이 만나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통제되지 않는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미국의 세계 패권 균열로부터 발발하는 전쟁이 모두의 삶을 뒤흔 드는 시대, 노동절을 지켜온 자부심으로 새로운 사회의 질서를 만들어갈 서로의 얼굴을 기쁘게 확인합시다.

###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3월 9일 정기대의원대회를 마친 지부 임원들은 3월 말에서 4월 내내 현장순회를 하며 5명부터 1천 명까지 다양한 64개 사업장 조합원을 직접 만나고자 노력했습니다. 현장순회를 마무리한 저녁은 언제나 해당 권역 간부들이 함께하는 뒷풀이로 만들어 사업장 간 관계도 끈끈하게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 생생한 후기를 전합니다.



3.20(금)  
유베이스수원  
삼성전자서비스경기



3.25(수)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평택  
계양전기(천안)  
지큐피앤씨  
코리아에프티



4.1(수)  
대한솔루션  
르그랑코리아  
동우화인캠  
우리



현대모비스평택  
테크젠  
한온시스템평택



4.2(목)  
보그워너평택  
보그워너모빌리티코리아  
한국호야전자  
대원산업평택  
티씨케이



4.3(금)  
크린팩토메이션  
이앤에스



4.6(월)  
비테스코



4.7(화)  
모베이스전자  
현대모비스화성  
현대모비스하나  
말레동현화성  
신한발브

4.13(월)  
삼성  
삼성웰스토리

### Q. 현장 순회를 하게 된 이유?

#### 언제나 조합원과 함께하는 조직, 살아있는 연대의 씨앗

14기 지부장은 지부 활동의 출발을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경기지부가 단순히 수원에 사무실을 두고 집회만 조직하는 상급단체가 아니라, 언제나 현장의 조합원들과 함께하는 조직이라는 것을 직접 확인받고 싶었습니다. 지회장뿐만 아니라 상집 간부들과도 보다 깊은 관계를 만들어가고, 현장 순회를 계기로 인근 지회 간부들까지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루 4~5개 사업장을 순회한 뒤 함께하는 뒷풀이 자리 또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형식적인 연대를 넘어, 서로 얼굴을 알고 마음을 나누는 관계 속에 만들어지는 살아있는 연대의 씨앗을 만들고자 합니다.

### Q. 현장 순회를 하면서 느낀 점

#### 사업장 간부 헌신 느껴, 지부가 발로 뛰어야

경기지부에는 64개 사업장이 있고, 각 사업장마다 현장 상황과 분위기가 모두 다르다는 것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지회와 지부를 바라보는 시선 또한 다양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아직 '먼 동네에서 온 사람' 처럼 느껴지는 순간도 있었는데, 이를 보며 더 자주 현장을 찾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경기지부가 보다 친근한 조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결국 발로 뛰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각 사업장에서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 조합원과 소통하기 위한 게시판과 일정 운영 등을 보며 지회와 분회 간부 동지들의 헌신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Q.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 함께 보낸 밤, 나눠 입은 옷. 소소한 정의 힘

경기지부는 동서남북으로 이동하는 데 각각 1시간 이상 걸릴 정도로 넓은 지역에 사업장이 분포해 있습니다. 평택에서 현장 순회를 마친 뒤 테크젠, 현대모비스평택, 한온시스템평택지회 간부들과 함께한 자리가 2차까지 이어졌고, 다음 날 한국오텍컬하이테크 선전전 일정이 있어 숙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테크젠 서민준 지회장 동지가 안방을 내어주셔서, 함께 중국술을 나누며 하루를 마무리했던 일이 인상 깊습니다. 다음 날에는 유니폼까지 챙겨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큼니다. 또 한 번은 현대모비스평택지회에 가서 "웃이 멋있다"고 했더니 양태인 지회장 동지가 상의를 선뜻 건네주셔서 지금도 잘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 코리아에프티 유니폼도 잘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소소한 정들이 현장 순회의 또 다른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 Q. 노동절을 앞두고 조합원에게 하고 싶은 말

#### 되찾은 노동절, 우리 노동자 존재를 바로 세우는 의미

그동안 '근로자의 날'로 불리던 5월 1일이 63년 만에 다시 노동자의 날이라는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이름을 되찾았다는 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우리 존재를 바로 세우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또 올해부터는 하청·도급 노동자들도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원청 기업들은 여전히 교섭 요구에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 일수록 5월 1일은 더욱 중요합니다.

노동자의 이름을 되찾은 원년, 우리의 권리를 스스로 확인하는 자리인 만큼 조합원 동지들뿐 아니라 가족과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모일 때, 우리의 힘은 더 분명해집니다.**

# 따끈따끈 새식구

2026년 4월 현재 경기지부와 함께 하는 사업장이 64곳으로 늘었습니다.

3월 22일 희성축매지회, 4월 15일 현대모비스사무연구직지회가 총회를 열고 금속노조 경기지부의 따끈따끈한 새식구가 되었습니다. 지회 설립과 함께 각각 320명, 350명을 넘는 조합원이 가입해 권리를 향한 현장의 열망을 보여주었습니다.



희성축매는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 촉매, 환경 촉매, 화학 공정 촉매, 전극 촉매 등을 제조하는 국내 최대 촉매 전문 기업으로 시화공단에 있습니다. 일방적인 통보와 소통없는 현장운영, 부당한 성과분배와 노동강도 강화, 일방적 특근 강요와 연월차 사용 통제 등 무권리 현장을 바꿔 스스로 권리를 키워가는 것이 노동조합 설립 목표입니다.



희성축매지회 서환원 지회장은 지난 4월 8일 지부 투쟁선포식에서 당당히 단체협약을 체결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위 사진)



현대모비스사무연구직지회는 최근 그룹의 경영전략 변화에 따른 램프 사업부 매각 추진 등 그룹 비전과 고용변화에 대해 현장과의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과정에 노동자들이 문제제기하며 탄생했습니다.

경기지부 최초로 조직 이름에 '사무연구직'을 단 지회의 등장, 사무연구직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키우는 노동조합은 어떤 모델이어야 할까. 경기지부가 또 노동조합의 새로운 도전에 나섭니다.



# 2026 교섭도 출발

4.16(목) 14시 경기지부에서 2026년 집단교섭 상견례가 진행되었습니다. (위 사진) 4.14(화)에는 중앙교섭도 출발해 본격적인 교섭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목요일 교섭 속보를 통해 소식 전하겠습니다. 집단교섭을 시작으로 지부 각 사업장의 상견례도 속속 진행됩니다.



**함께 만든 1만 명의 힘! 미래를 개척하는 경기지부!**

4.15(수)

현대모비스안양

4.17(금)

현대그린푸드경기  
현대남양비정규직

4.22(수)

희성축매  
대원산업안산(시화)

대창

대용산업

현대위아시화

금토일산업

인지컨트롤스안산

4.29(수)

가레트모션코리아

우창정기

동양피스톤

현대위안산

에스제이엠

대원산업안산



일상에서-투쟁까지-삶을-나누는

# 금속 경기